

라틴아메리카와 미국: 역사적 관계와 문학적 이미지*

김창민(서울대 서어서문학과)**

- I. 들어가는 말
- II. 수탈과 침략의 역사
- III. 라틴아메리카 문학에 나타난 미국의 부정적 모습
- IV. 맺는 말

I. 들어가는 말

왜 오늘날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민들은 폭력과 가난 속에 살게 되었을까? 스페인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지 거의 200년이 되었지만 아직 반듯한 나라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스페인 식민통치가 남긴 못된 유산 때문일까? 사람들이 게을러서 그럴까? 지도자들이 못나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수탈 때문일까?

콜롬부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우연히 도착하는 순간 시작된 수탈의 역사는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스페인 식민지배가 시작되던 시기부터 라틴아메리카는 항상 유럽에 일차상품과 노동력을 값싸게 제공해왔고, 비싼 값으로 공산품을 수입해야 했다. 유럽의 산업혁명을 위해, 서구 열강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인들은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KRF-2004-072-AL3049).

** Chang-Min Kim(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Spanish Language and Literature, chang107@snu.ac.kr), "América Latina y Estados Unidos: relación histórica e imagen literaria".

허기를 감내해야 했다. 수많은 지하자원을 생산하면서도 라틴아메리카는 점점 더 가난해졌고, 그 자원들을 소비하는 국가들은 점점 더 부유해졌다.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의 흥분이 채 식기도 전에 라틴아메리카는 미국으로부터 무력침공과 경제적 수탈을 당하기 시작했다. 여러 나라에서 대중의 지지를 받은 민주정권이 미국의 개입으로 무너졌다. 반면 잔악한 독재정권들도 미국의 지원으로 유지되었다. 미국의 절대적인 영향 속에서 미국의 실체를 뼈저리게 느껴왔다.

라틴아메리카는 왜 가난과 폭력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할 때 많은 경우 스페인 식민지배의 부정적 유산들을 원인으로 거론한다. 스페인의 봉건주의, 보수적인 카톨릭, 지방호족, 혼혈인의 열등성, 비굴한 근성 등이 그것들이다. 실제로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대부분의 소개서는 그 점에 많은 비중을 두어왔다. 하지만 라틴아메리카가 독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 지역의 운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행사해 온 나라는 바로 미국이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한 관심과 언급은 그 중요성에 비해 너무 부족하다. 미국은 1848년 멕시코와의 전쟁에서 이긴 후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애리조나, 텍사스 등 거대한 영토를 빼앗았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조약을 통해 멕시코가 미국에 파는 것으로 했다. 1898년 미국은 스페인과의 전쟁을 통해 푸에르토리코와 쿠바의 지배권을 획득하면서 카리브 해의 지배권을 장악했다.

19세기 후반,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인들에게 미국은 자유, 민주, 풍요의 상징이었다. 쿠바의 독립 영웅이자 라틴아메리카 모데르니즘 문학의 선구자인 호세 마르티(1853-1895)도 처음에는 미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부러워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수년간 살면서 미국의 실상을 보았다. 소수가 부를 독점하는 미국 사회에서 ‘자유’와 ‘민주’라는 단어의 허상을 보았다. 그리고 “미국은 금새 망할 것이다. 탐욕스러움으로 인해, 정도를 벗어난 번영으로 인해, 비도덕적인 풍요로움으로 인해 멸망할 것이다”라고 예언했다. 그리고 당시 쿠바를 미국에 합병시키자는 자들에게 실랄한 비판을 가한다. 또 다시 식민지

로 전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남진희 1999, 185-187).

미국의 제국주의에 대한 마르티의 우려는 그 후 1세기 이상 현실이 되었다. 미국은 수십 차례의 침략과 군사개입을 통해 라틴아메리카를 통제해 왔다. 자유의 횃불을 밝힌다는 자유의 여신상은 장부를 들고 수탈의 횃불을 치켜든 침략자의 이미지로 변해왔다. 멕시코의 소설가 카를로스 푸엔테스의 비유에 따르면 “미국은 지킬 박사과 하이드라”. 자국 내에서도 평등과 자유를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면서도 대외적으로 그런 명분을 내세워 다른 나라를 침공하는 침략자였다(Fuentes 1992, 351).¹⁾

미국은 “문명화된 나라”의 의무를 다 하기 위해 1980년대까지 니카라과에 14회, 파나마에 12회, 온두라스에 7회, 쿠바에 7회, 과테말라에 2회, 도미니카공화국에 6회, 아이티에 6회, 그라나다에 1회 무력개입 하였다(Lee Bretz et al. 1992, 127-128).²⁾ 이웃의 도리를 다 한 결과, 쿠바에 영구 해군기지를 설치했으며, 파나마 운하를 차지하고, 니카라과에 운하건설권을 확보하고, 푸에르토리코를 반식민지로 만들 수 있었다. 니카라과의 산디노 정권을 무너뜨리고 독재자 소모사를 40년간이나 지원했다. 칠레의 아옌데 민주정부를 피노체트의 쿠데타를 통해 무너뜨린 역사적 사실에서 확인되듯이,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독재정권이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민중의 지지를 받은 민주정부라도 온갖 수단을 써서 전복시키고 말았다. 비록 프랭클린 루즈벨트나, 지

1)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2005년 7월 2일, 독립기념일(7월 4일)을 앞둔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미국은 지금 이라크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자유롭게 태어났다는 미국 독립선언의 보편적 원칙을 이행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런데 미국의 12%가 빈곤층이고, 그중 80%가 흑인이다. 인구 10만 명당 수감자 수가 726명으로 세계에서 교도소 수감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수감자 10명중 6명이 흑인이다. 특히 20대 후반 흑인 인구의 12.6%가 교도소에 있다. 같은 연령대 백인 수감자의 비율(1.7%)의 7배가 넘는 수치다(중앙일보, 2005년 7월 5일, 31면). 이러한 인종차별과 불평등은 2005년 9월 카트리나 태풍의 피해상황을 통해서도 여실히 증명되었다.

2) 좌파적 성향이 강한 작가로 알려진 Mario Benedetti 역시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미국의 간섭과 착취를 비난하면서 “미국은 정기스칸, 스탈린, 무솔리니, 알렉산더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다른 나라를 침략을 했고, ... 그 중 절반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대한 침략이었다”고 주장한다(Marras 1992, 206).

미 카터같이 라틴아메리카에 대해 유화적이고 온건한 정책을 펴려고 한 대통령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미국은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포기하지 않았다.

마침내 라틴아메리카인들은 자신들의 고유 명칭마저 상실해 가고 있다. 사실, 혼합 민족으로 구성된 미국인에 비해 오래 전부터 아메리카 대륙에 살아왔고 뿌리 깊은 문화를 체현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인들이야 말로 진정한 ‘아메리카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아메리카’는 곧 미국을 뜻하게 되었고 ‘라틴아메리카적인 것’은 곧 ‘미국적인 아닌 것’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Marras 1992, 205).

이 글은 먼저 19세기 중반부터 라틴아메리카에 영향력을 키워온 미국이 라틴아메리카의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 다음, 라틴아메리카인들이 가져온 미국의 이미지는 어떤지 구체적 문학작품들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라틴아메리카에 있어 미국의 존재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 이후 팍스아메리카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미국의 대외 정책과 외교의 본질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통해 미국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되돌아보고, 바람직한 세계화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II. 수탈과 침략의 역사

II.1. 정치, 군사적 개입

1820년경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고 있을 무렵 미국은 유럽열강들과 맞설 정도로 국력이 신장되

어 있었다. 미국은 라틴아메리카의 독립을 적극 지원하면서 한편으로는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자신의 몫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1823년, 마침내 미국은 먼로독트린을 선언한다. 어떻게 보면 이 선언은 미국이 자신의 이웃국가를 열강의 착취로부터 지켜주고자 하는 충정의 발로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이후 전개된 실상은 그와 정반대의 해석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한다. 쉽게 말해서 이제 아메리카 전 대륙은 미국이 혼자 알아서 할 테니 유럽제국은 더 이상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었다. 미국의 제국주의 역사가 시작됨을 만천하에 알리는 서곡이었고, 유럽제국에 대한 일종의 도전장이었다.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활발하게 시작한 대통령은 테오도르 루즈벨트(1901-1909)였다. 그는 미국이 서반구의 경찰국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카리브해에 대한 개입을 정당화했다. 그 이후 미국은 라틴아메리카 전체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당연하게 생각했다. 나아가 T.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처럼 문명화된 나라가 ‘불쌍한’ 이웃나라들에 관여하는 것은 의무라고 해석했다. T. 루즈벨트 대통령이 정치적 영향력에 주된 관심을 보인 반면, 뒤를 이은 윌리엄 하워드 테프트 대통령은 경제적 독점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미국의 몇몇 다국적 기업은 라틴아메리카의 경제권을 장악하는데 성공했다. 민족자결주의를 주창한 것으로 알려진 윌슨 대통령은 전임자들과는 달리 이상적인 외교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재임시절 니카라과, 멕시코,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등에 무력침략을 자행함으로써 미국외교의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말았다(Lee Bretz et al. 1992, 127-128).

미국은 나름대로 라틴아메리카를 이웃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도우기 위해 애써왔다고 주장한다. 그 예로 케네디 대통령의 ‘진보동맹(Alliance for Progress)’을 들기도 한다. 200억불을 라틴아메리카의 농업경제 개혁과 인프라 구축, 교육과 보건 등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해 제공한 미국의 선의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쿠바의 혁명 성공이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국가들로 전파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나온 지원정책이지만, 라틴아메리카의 일부 나라에는 도움이 된 것

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 개혁과 발전은 미국 투자자들의 요구에 맞춘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그것은 라틴아메리카 사람들이 수출용 농작물을 생산하기 위해 자신들이 일상적으로 먹을 옥수수나 콩 등의 재배를 더욱 줄여야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식의 개발이 지향하는 농산물 수출 모델은 언제나 국민 대다수는 굶주리고 있는 데도 GNP는 올라가는 “경제기적”을 낳아왔다. 또한 그 과정을 통해서 각국의 토착자본 세력은 점점 힘을 잃었고, 미국의 간섭은 더 심화되었다(츨스키 1996, 56).

더구나, ‘진보동맹’을 추진한 케네디 정부의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게 하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다. 한 예로, 케네디 정부는 브라질 민주정권이 갈수록 독자노선을 강화해 나가자 1964년 브라질에 군사 쿠데타를 유도했다. 쿠데타 지휘자가 고문과 탄압으로 신나치 형태의 독재 정부를 세우는 동안, 미국은 쿠데타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이는 아르헨티나와 칠레를 비롯하여 여러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아메리카 대륙은 196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처참했던 유혈의 시대를 보내야 했다.

1970년대 후반 산디니스타에 의해 독재자 소모사의 통치가 위기에 몰리자 카터 대통령은 미국 세력의 발판으로 소모사의 방위군 만큼은 살리려고 애를 썼다. 그 방위군은 1979년 6월 산디니스타와 전쟁을 하면서 마나구아의 민간 거주 지역을 폭격하여 수만 명을 참살하는 대규모의 잔학 행위를 저지른 장본인이었다. 미국의 노력으로 결국 방위군은 후에 ‘콘트라’ 즉 “자유의 투사”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레이건은 그들을 이용하여 니카라과와 대규모 테러 전쟁을 일으켰으며, 그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경제전(戰)에까지 개입시켰다. 내전과 기아를 통해 니카라과 산디니스타 정권의 정책이 실패작이라고 국민들이 인식하도록 유도했다. 그리고 선거가 시작되자 미국은 만약 산디니스타가 선거에서 이기면 니카라과에 대한 봉쇄 조치와 콘트라의 테러행위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이런 위협 속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산디니스타는 당연히 패배했다.

미국은 왜 산디니스타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 그토록 애를 썼을

까? 국제개발 단체인 옥스팜(Oxfam)은 76개 개발도상국에서 일한 경험을 빌려 다음과 같이 그 실질적인 이유를 설명했다. “니카라과는… 국민들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고 국가 발전 과정에 국민의 직접적 참여를 권장한다는… 공약을 지키는 예외적인 정부이다”. 1980년대 초기에 세계은행은 자신들의 사업이 “몇몇 부문에서 세계의 다른 어느 나라와도 비할 수 없을 정도의 눈부신 성공을 니카라과에서 거두었다”고 말했다. 코스타리카 민주주의의 아버지 호세 피게레스는 “니카라과는 역사상 최초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부를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산디니스타 개혁의 성공은 미국의 정책 담당자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것이다.

니카라과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이미 그 이전에 유사한 선례를 가지고 있었다. 1944년 과테말라에는 혁명이 일어나 난폭한 독재가가 쫓겨나고,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을 토대로 한 민주주의 정부가 수립되고 있었다. 그 후 10년 동안의 민주주의적 과도기를 거쳐 성공적으로 자주적 경제 발전을 시작했다. 그 정권은 군사독재, 사회적 퇴보, 경제적 식민 상태로부터 과테말라를 해방시키기 위한 국민운동을 일으켰다. 그런데 미국은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그 개혁적이고 민족주의적인 과테말라 정부가 미국의 이익에, 특히 유나이티드 프루트사의 활동에 장애가 된다는 것을 알았고, 그러한 개혁의 성공이 다른 이웃나라로 확산될까봐 우려하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은 쿠데타를 사주하였고, 성공하였다. 그 후 과테말라에 조금이라도 미국의 정책 노선에서 벗어나려는 위협이 존재할 때면 항상 미국의 간섭이 되풀이 되었다.

노암 촘스키에 따르면, 미국은 라틴아메리카에서 독자노선을 걸으려 시도하는 지도자는 그냥 두지 않았다. 마약 범죄로 체포된 파나마의 노리에가도 마찬가지로 독자노선을 시도하다 축출되었다. 하지만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독재자라도 지원했다. 1980년대 초 과테말라의 폭군 리오스 몬트(Rios Montt)는 자국민 수만 명을 학살했지만 레이건은 그를 민주주의를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는 인물이라고 극찬했다. 또 도미니카의 독재자 트루히요, 니카라과의 소모

사, 필리핀의 마르코스, 아이티의 듀발리에 등을 미국은 몇 십 년 동안 지원하였다. 조지 부시 행정부는 자이레 독재자 모부투, 루마니아의 차우체스쿠, 사담 후세인 등 노리에가보다 훨씬 죄가 중한 범죄자들에게 계속 경의를 표해왔다고 촘스키는 지적한다.³⁾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 역시 그의 저서 『신제국주의』에서 촘스키와 같은 주장을 펴고 있다. 그에 의하면, 미국은 유럽 열강으로부터 약소국이 독립할 시기에는 민족해방운동의 보호자인 양 했지만, 그 후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릴 때마다 다른 나라의 대중적, 민주적 운동을 억압하면서 제국주의의 본성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미국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아니라 사회민주주의적 또는 대중주의적인 입장에서 자본주의를 수정하고자 하는 시도들을 잔인하게 진압했다고 주장한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보시(Bosch), 브라질의 굴라르(Goulart), 그리고 칠레의 아옌데(Allende)의 경우에서 보듯이 미국은 사회민주주의나 온건한 비자본주의적 정책을 추구하는 민족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자국의 권력으로 가능한 모든 일을 자행했다는 것이다. 반면, “1970년대 아르헨티나 독재정권, 사우디 정권, 이란의 샤(Shah),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Suharto)와 같은 야만적인 독재정권은 미국에 이익이 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에 의해 무조건 지원되었다”고 주장한다(하비 2005, 69-70).

II.2. 경제적 수탈

미국이 라틴아메리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라틴아메리카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값싼 노동력 때문이었다. 스메들리 버틀러(Smedley D. Butler)라는 미국 해병 사령관은 퇴직 후 자신의 업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33년 4개월 동안 자본주의를 위한 총잡이 역할을 하였다. 멕시코, 특히 팜삐꼬 지방의 석유가 미국 손에 쉽게 넘어가게 만들었으며...”(Galeano 1992, 173). 미국이 자국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석유를 비롯해 철, 구리, 아연,

3) 니카라과, 과테말라에 대한 내용은 같은 책, 91-93.

우라늄 등 지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주요한 근간을 이룬다는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다양한 지하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대륙은 미국에게는 생명의 젖줄이자 풍요의 원천이 아닐 수 없다. 결국 라틴아메리카 지하자원과 관련하여 미국이 점유하고 있는 독점적 지위를 위협하는 어떠한 사태도 미국에게는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다. 1960년대 말까지도 미국의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투자액 중에서 절반 정도가 석유를 비롯한 지하자원의 확보에 집중되어 있었다. 미국은 라틴아메리카의 지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쿠데타와 전쟁을 사주할 정도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였다.

브라질에서는 파라오페바 계곡의 풍부한 철광맥을 고수하려던 두명의 대통령이 권좌에서 물러났다. 마침내 1964년 까멜로 브라코 원수가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고 그 철광맥을 미국의 한나광업사(Hanna Mining Co.)에 넘겨주었다. 스텐다드 오일사와 걸프사의 주요 유정이 있는 베네수엘라에는 미국의 주요 군사기지가 있다. 아르헨티나에서 일어난 수많은 쿠데타는 석유관련 입찰이 있는 전후에 일어났다. 그 외에도 라틴아메리카의 지하자원과 관련하여 수많은 쿠데타와 스파이 작전이 있어 왔다(Galeano 1992, 217-224).

농업 분야에 있어서 미국 자본의 횡포는 수많은 라틴아메리카인에게 질병과 고통, 기아를 가져왔다. 미국은 흑인노예들의 혁명이 처음으로 성공한 아이티를 20년 동안 점령하면서 아이티에 인종차별제도를 도입하였고, 노예제를 실시하였다. 혈값에 팔려 가는 설탕, 바나나, 생고무, 면화, 커피 등을 생산하기 위해 그들은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노예나 짐승처럼 일해야 했다. 더구나 많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대규모 농장제 하에서 한두 가지 농산품의 경작에 치중하고 있었고, 그중 절대 다수의 대농장이 미국인들의 손에 넘어가 있었다.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에콰도르, 과테말라와 함께 바나나 농업에 집중하고 있던 콜롬비아에서 1928년 농장 노동자들이 대규모 파업 투쟁 과정에서 무차별 학살되었던 당시에 유나이티드 프루트사(United Fruit Co.)는 콜롬비아 대농장의 대다수를 소유하고 있었다.⁴⁾

또한 농산물 가격은 생산과 구매, 판매망을 쥐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의 농간에 놀아나기 일쑤였기 때문에, 풍년이 들든, 흉년이 들든, 라틴아메리카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가난과 질병뿐이었다. 예를 들어 커피의 경우 20세기 중반 이후 소비자 가격이 꾸준히 상승했지만 실제 생산국의 판매가는 오히려 하락해왔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현실 이면에는 미국의 유니티드 프루트 같은 다국적 중개상들의 농간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항상 그 해당국의 권력층과 손을 잡고 있으며, 문제가 생기면 정권교체도 불사해 왔다.

한 예로 과테말라에서 1944년 선출된 후안 호세 아레발로 대통령은 도시와 농촌의 노동자들을 보호하는데 노력을 기울였고, 그를 이은 하코보 아르벤스 대통령도 전임 대통령의 개혁의지를 이어받아 1952년 농촌개혁안을 통과시켜 유니티드 프루트사 등 외국기업들의 토지 소유권을 박탈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곧바로 과테말라의 개혁을 공산주의 세력의 등장으로 몰아붙이고 과테말라를 침략하였다. 그 후 미국의 지지를 받은 독재자들이 줄줄이 등장하였고 미국 기업들은 잃었던 땅을 되돌려 받았다.

1970년대 이후 라틴아메리카에 있어서 미국 자본의 활약은 결과적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이라는 전위부대에 의해 크게 도움을 받았다. 물론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경제여건이 허약한 것이 근본원인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IMF의 처방은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경제기반을 더욱 허약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그들은 항상 ‘통화 안정’이라는 주문(呪文)같은 구호를 앞세우고, 감기환자를 중환자로 취급하듯, 인플레이션을 항상 경제구조의 문제로 확대 해석하면서 경제적 불안 상태를 완화시키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키기 일쑤였다. 항상 재화의 공급이 부족해 인플레이션이 심한 나라들인데도 불구하고 긴축정책을 강요함으로써 내수시장을 더욱 위축시키고, 결국 국내 산업은 갈수록 사경을 헤매는 결과를 초래했다. 라틴아메리카 산업의 기반이 허약하고 아직 대외경쟁력을 갖추

4) 이 학살 사건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백년간의 고독』에 언급되고 있다.

지 못한 상태인데도 과도하게 시장개방을 요구하였다. 왜곡되고 허약한 경제구조를 가진 나라들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역할을 제한했다.⁵⁾ 게다가 급격한 통화평가절하를 요구함으로써 외국자본이 혈값으로 국내 기업들을 인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라틴아메리카의 수많은 나라들이 IMF의 지원을 여러 차례 받아왔지만 IMF의 처방에 따라 경제를 일으키는 데 성공한 나라는 드물다. 예를 들어, 멕시코는 1982년부터 오늘날까지 세 차례의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IMF의 지원을 받고 IMF의 충고를 성실하게 따라왔다. 하지만 오늘날 멕시코의 경제는 결과적으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과거보다 더 많은 기업이 미국 자본의 손에 넘어가고, 82년 당시 30퍼센트이던 빈곤층이 98년 현재 70퍼센트에 달한다. 더욱이, 극빈층이 30퍼센트에 달한다는 통계가 말하듯, 결코 멕시코는 IMF의 도움으로 경제가 나아졌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도 항상 외환위기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⁶⁾

아르헨티나의 경우, 메넴 정부(1989-99)는 미국이 주도하는 IMF를 비롯한 국제금융기구의 권고대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대폭적인 민영화와 개방 정책을 실시해 국제금융권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전화국, 항공사, 도로, 석유산업, 전력회사, 가스 산업 같은 공공서비스와 전략산업도 민영화했다. 그 결과 아르헨티나의 주인은 대공황 이전처럼 다국적 자본과 과두제 세력이 연대한 ‘제국주의-과두제 동맹’이 되었다. 동시에 개방화로 인해 무역수지 적자가

5) 멕시코의 경우 NAFTA를 통해 농촌의 경제사정은 피폐해졌다. 살리나스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의해 1917년 헌법에 의해 보호받아왔던 농민들의 집단 소유 토지인 에히도(egido)의 민영화를 1991년 승인했다. 이어서 농산물 수입관세의 인하로 미국의 국가보조금(비용의 20%)을 받아 효율적으로 생산된 미국의 값싼 농산물이 밀려들어 왔고, 결과적으로 멕시코의 곡물 및 여타 생산물들의 가격은 소규모 농업생산자들이 경쟁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졌다. 많은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 이미 넘쳐나는 도시의 실업자 대열에 합류하게 만들었다(하비 2005, 154-155).

6) Enrique Valencia Lomeli, “멕시코 경제, 끝없는 구조조정(1982-1998)”, 1998년 10월,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강연회에서 발표한 논문. 사족이지만, 한국이 IMF의 지원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성공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한 나라의 본보기로 멕시코를 수없이 거론하였다. 성공사례를 배우기 위해 고위관료들이 멕시코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논자는 한국이 IMF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멕시코를 본받아서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큰 폭으로 늘었고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외화가 필요했다. 결국 1994년 멕시코 폐소위기로 아르헨티나에서도 자본 유출이 일어나고 중앙은행 지준보유고가 급감해 IMF의 구제금융을 통한 자금조달로 메워야 했다. 1997년 아시아 위기가 발생한 당시에 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국제금융권의 칭찬을 받았던 메넴의 개혁으로 아르헨티나 경제는 국제금리와 외자 유입 같은 외생적인 변수에 크게 의존하는 체질로 변했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고 말았다. 동시에 실업자와 빈곤층이 증가하고 사회 치안 상태는 악화되었다. 그런데도 국제 금융권은 긴축재정 정책만을 요구했다. 급기야 보수층을 대변하는 카톨릭 교회조차도 국제 금융기구를 비판하고 나섰다.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 결핍된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위험한 수준의 불평등”을 낳고 있는 “경제의 전체적 지배”에 반대했다(이성형 2002, 14-17).⁷⁾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미국에게 있어 라틴아메리카는 “누구도 괴롭혀 본 적이 없는 우리의 작은 땅”⁸⁾이었다. 라틴아메리카는 말 그대로 미국의 ‘앞마당’이었다. 미국은 철저히 자국의 이익과 풍요를 위해 라틴아메리카에 개입하고 조종해왔다. 미국은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에 개입할 때마다 자유와 민주라는 보편적 가치를 내세운다. 하지만 실제로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민주정부도 무너뜨리고, 독재정권도 지원해왔다. 이런 미국의 태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미

7) IMF를 비판하는 대표적인 학자로는 스티글리츠를 들 수 있다. 그는 스탠포드 대학의 경제학자, 클린턴 행정부의 경제자문역, 세계은행의 부총재를 역임했고,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그는 『세계화와 그 불만』(*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s*)이라는 저서에서 IMF를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IMF가 미 재무부와 월스트리트의 이해를 충실하게 대변하면서 경제 원리보다는 정치와 이념적 경직성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여 개발도상국에 수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국이 그렇게 돈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에 돈을 빌려주려 하고, 반면 진짜 돈이 필요할 때에는 돈을 회수하고 매우 높은 이자를 낼 것을 강요한다. 또 개방하면 해당국이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점을 모든 증거가 가리키고 있는데도 은행들은 자본시장의 개방화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이성형 2002, 51쪽에서 재인용) 최근 세계은행과 IMF의 과거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자성하는 목소리가 내부에서도 크게 일고 있다(<서울경제> 2004년 7월 27일).

8) 루스벨트와 테프트 대통령 시절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고, 후버 대통령 시절에는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스티imson(Henry Stimson)의 말이다(츄스키 1996, 51).

국의 외교, 군사적 행동은 두서없이 계속되는 실수, 또는 혼란의 연속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⁹⁾

III. 라틴아메리카 문학에 나타난 미국의 부정적 모습

역사를 통해 라틴아메리카인들은 미국을 풍요와 자유가 있는 선망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침략과 약탈을 일삼는 위선적인 국가로 인식해 왔다. 이처럼, 현실에서 이중적인 이미지로 인식되는 미국은 라틴아메리카 문학에서는 주로 부정적 모습으로 나타난다. 카를로스 푸엔테스의 소설 『늙은 양키』(*Gringo viejo*, 1985)의 주인공처럼 개인적 차원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지닌 미국인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작품에서 미국이라는 집단전체 혹은 한 미국기업이나 개인은 착취와 폭력의 전형으로 등장하고 있다. 미국이 라틴아메리카 문학에서 부정적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은 1898년 미서전쟁에서 승리하고 쿠바와 푸에르토리코를 점령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다.

III.1. 시

우선 라틴아메리카 문학의 본격적인 근대화를 선언하고 나선 루벤 다리오는 <테오도르 루즈벨트에게>라는 시를 통해 미국의 이중성을 직설적으로 폭로하고 있는데, 특히 그의 제국주의 정책에 초점을 맞

9)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도 이러한 미국의 본성을 드러내는 비근한 예가 있다. 미국의 군사기밀을 한국에 몰래 전달했다는 혐의로 징역 7년을 복역한 후 로버트 김은 “미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정보를 다른 앵글로색슨 국가들(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는 제공해 줬다. 그러나 정작 그것이 가장 필요한 한국은 그런 정보가 있는지조차 몰랐다. 당시 북한은 휘청거리는 상황이었다. 나는 이런 정보가 전달돼 한국이 북한의 붕괴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통일을 준비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랐다.”라고 자신의 스파이 행동의 배경을 밝혔다(중앙일보, 2005년 10월 10일, 29쪽). 이 일화를 통해 미국이 ‘우방’인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을 대하는 기본 태도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추고 있다. 시인은 미국의 경제적 발전과 정치적 민주화를 인정하면서도 비인도적, 비윤리적 배금주의와 팽창주의를 고발하고,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이중적 태도를 비꼬고 있다.

성서의 말씀을 가지고, 아니면 윌트 휘트먼의 시구를 가지고
그대에겐 가야하리, 그대 사냥꾼이여,
원시적이면서도 근대적이고, 단순하면서도 복잡하고,
약간의 워싱턴 속성에 네 명의 뱀뿔을 지닌 그대.

그대는 미합중국,
머지않아 그대는
아직도 그리스도에게 기도하고 스페인어를 쓰는,
원주민의 피를 지닌 순박한 아메리카의 침략자.

...

이미 위고는 그랜트에게 말했다. “별은 모두 당신들 것이요.”
(아르헨티나의 태양과 칠레의 별은
치켜들어도 빛나지 않으니...) 그대들은 부유하다.
그대들은 헤라클레스에다 맘몬까지 경배하도다.
손쉬운 정복의 길을 밝혀주면서
뉴욕에선 자유의 횃불을 쳐들고 있구나.(Dario 1954, 720-721)

이 시가 쓰여진 것이 1905년 이전이지만, 이미 시인은 미국의 제국주의를 훤히 간파하고 있었다. 이 시에서 루벤 다리오는 스페인어권 아메리카를 “태양의 딸”로 지칭하면서, 미국의 풍요, 폭력과 대비되는 라틴아메리카의 긍정적인 가치들로 사랑과 꿈을 내세우고 있다.

파블로 네루다도 미국의 제국주의를 비난하는 시를 썼다. 라틴아메리카 민중의 노래, 라틴아메리카의 서사시라고 할 수 있는 『총가요집』(*Canto general*, 1950)에서 라틴아메리카 사회에서 독재정치와 민중의 고통을 유발한 책임을 미국의 제국주의에 묻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근대사를 서술하는데 있어, 더욱이 라틴아메리카 민중의 역사를 서술하는데 있어 그 땅에서 미국 다국적 기업의 존재 의미와 그 역할을 서술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특히 칠레의 구리광산 개발을 독점했던 아나콘다 구리광업회사(La

Anaconda Copper Mining)와 중미에서 바나나 산업을 주도하면서 중미정치와 경제를 좌지우지했던 유나이티드 프루트사에 가장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다음은 <유나이티드 프루트사>라는 시의 일부이다.

나팔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지상에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고,
 여호와와 이 세상을 나누시어,
 코카콜라사, 아나콘다사,
 포드사와 그 외 회사들에게 주셨다.
 유나이티드 프루트사는
 가장 비옥한 땅을 차지했으니,
 이 땅의 중부해안지대,
 아메리카의 날씬한 허리였다.
 자기 땅을 새로 명명하길
 “바나나공화국”이라 하였고,
 죽어 잠들어 있는 자들 위에,
 자유와 국기,
 영광을 쟁취했던,
 애국심에 불타는 선열들 위에서
 어릿광대 극을 펼쳤다.
 자유의지를 멀리하게 했고,
 시저의 왕관을 주었다.
 탐욕이 드러나게 했고,
 파리 같은 자들의 독재를 부추겼다.(Neruda 1992, 335-6)

그래서 “카페의 시에 반대하여 자연의 시를 주장하며, 살롱의 시에 반대하여 광장의 시, 저항의 시를 주장”한 ‘반시(反詩)’의 작가 니까노르 파라(Nicanor Parra, 1914-)는 단행시 작품에서 ‘자유의 여신상’ 그림과 함께 “미국, 그곳에서 자유는 조상(彫像)에 불과하다”(Parra 2001, 271)고 일갈함으로써, 자유와 관련된 미국의 위선적 행동을 비난했다.

III.2. 소설

소설에서도 미국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등장하는 경우는 일일이 다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특히 1925년에서 1950년대까지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만행을 고발하는 작품들이 어느 때보다 많이 등장했다. 막시모 소토 홀의 『백악관의 그림자』(*La sombra de la Casa Blanca*, 1927), 데메트리오 아길레라 말타의 『운하지역』(*Canal Zone*, 1935), 카를로스 루이스 파야스의 『유나이 엄마』(*Mamita Yunai*, 1941) 등이 미국의 제국주의적 만행을 고발한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반미제국주의를 철저하게 드러낸 작가는 바나나 농업과 관련된 미국의 만행을 소재로 3부작 소설, 『강풍』(*Viento fuerte*, 1950), 『파파 베르데』(*El Papa Verde*, 1954), 『매장된 자들의 눈』(*Los ojos de los enterrados*, 1960)을 펴낸 미겔 앙헬 아스투리아스(1967년 노벨 문학상 수상)이다.

‘파파 베르데’는 ‘녹색의 교황’이라는 뜻으로 미국의 달러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작품에서 소지주 농민들은 바나나 농사로 보다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레스터 미드의 권고에 용기를 내어 모두 바나나 재배를 한다. 하지만 세계 바나나 시장을 독점하는 몇몇 기업가들의 손에 의해 농락당할 뿐 그들의 꿈은 결코 실현될 수 없게 된다. 아스투리아스는 뉴욕이나 시카고의 고층빌딩 사무실에 앉아 배당금밖에 생각하지 않는 기업가들이나 주주들이 라틴아메리카의 억압과 독재를 조장하고 지원하는 현실을 신랄하게 풍자하고 비판한다. 소설에서 미국 바나나 자본을 대표하는 트로피칼 플란타네라(*Tropical Plantanera*)사의 회장은 “사람들의 목숨에는 관심도 없고 숫자만 생각하는 존재로서, 뉴욕 증권가의 검은 칠판에 쓰인 숫자로 이루어진 존재”(Asturias 1972, 95)라고 묘사되고 있다. 레스터 미드가 파파 베르데를 찾아가 수많은 농민들의 고통을 생각해서 바나나 가격을 조금 올려 달라고 하자, 그는 오히려 구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해버린다. 또한 주주들이 자신들의 자본이 비인도적인 과정을 통해서 증식되는 것을 바라겠느냐고 묻자, 투자자들에게 중요

한 것은 배당금일 뿐이라고 파파 베르데는 잘라 말한다(Asturias 1972, 94).

페루와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 안데스 산맥 주변의 국가에서 20세기 소설의 주요한 흐름을 형성한 ‘인디오 소설’, 혹은 ‘토착주의 소설’에서도 미국의 부정적 이미지는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한 예로, 마누엘 스킨스키는 “소리 없는 전쟁”라는 주제 아래, 중앙 안데스 지역의 여러 인디오 마을에서 일어난 착취와 반란의 역사를 다루는 다섯 편의 장편소설을 연작형식으로 펴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작품 『랑카스에 울리는 북소리』(*Redoble por Rancas*, 1970)는 인디오들의 비극적 삶을 마술적 사실주의 기법으로 형상화시킨 작품으로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전체 34장으로 이루어진 이 소설의 근간을 이루는 줄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랑카스 인디오 공동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미국 자본의 기업 세로 데 파스코(Cerro de Pasco Cooperation)에 대항하는 인디오들의 투쟁과정이고, 다른 하나는 절대적 권력을 남용하는 지방재판관과 인디오 공동체와의 대립이다. 인디오 마을에 들어와 울타리를 치면서 모든 산과 초원, 농토와 호수를 삼키고 마침내 공동체의 존재마저 부정하게 되는 미국회사는 마치 악몽 속의 괴물처럼 그로테스크하게 그려지고 있다. 광산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광부들과 주민들이 공해 때문에 얼굴이 가지각색으로 변해 가는 처참한 상황도 작가의 카니발식 언어¹⁰⁾를 통해 폭로되고 있다. 또한 과거 라틴아메리카의 독립전쟁 당시 랑카스 공동체에 도착하던 시몬 볼리바르 해방군과 오늘날 미국 자본의 앞잡이로 공동체를 탈취하러 온 정부군의 모습을 마치 영화의 오버랩 기법처럼 번갈아 대비시킴으로서 역사의 비극적 아이러니가 효과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어느 나라보다 미국의 경제적 수탈과 사회 문화적 억압을 많이 받아온 푸에르토리코의 문학에서 미국에 대한 거부반응은 두드러진다. 사실,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스페인 지배에서 미국 지

10) 카니발식 언어는 중세 카니발의 성격을 이어받은 언어라는 의미다. 카니발에서 보이는 유희와 풍자, 해학 그리고 그로테스크 미학을 지닌 언어이다.

배로 넘어간 뒤 한동안 막연하게나마 미국 통치에 대해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들의 환상은 산산이 깨어졌고, 잔인한 식민통치를 몸소 체험하게 되었다. 1930년대부터 미국문화와 전통문화 간의 갈등이 문학작품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50년대 이후부터는 미국에 대한 반감이 보다 고조되어 많은 작품에서 반미주의가 주제로 등장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우스마일』(*Usmail*, 1959)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소설은 미국에 의한 푸에르토리코 식민통치의 역사를 소설화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해군기지의 설치로 인해 섬이 황폐화 되어가는 과정과, 경제적 착취와 인종차별을 통해 그곳 민중들이 겪는 경제적, 심리적 고통을 형상화하고 있다.

‘우스마일’은 이 소설의 주인공의 이름인데 U. S. Mail을 붙여서 스페인어식으로 읽은 것이다. 혼혈 사생아 우스마일은 아담스라는 백인 미군이 푸에르토리코의 비에케스라는 해군기지에서 근무하던 중 흑인 처녀 체파와 관계를 가지면서 태어난 아이다. 아담스는 우스마일이 태어나기도 전에 체파를 버리고 본국으로 가버렸고, 아담스의 소식을 기다리는 체파는 매일 우체국에 가 미국에서 오는 우편행량(U.S. Mail)을 기다린다. 그렇게 해서 그녀가 낳은 아이에게 사람들은 우스마일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된다. 일찍 엄마가 죽자 그는 민간치료에 능통한 노파의 손에 자라면서 자신의 혼혈피부색처럼 정체성의 혼란에 빠지게 된다. 그는 섬 주민이 미국 해군기지의 철수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일 때 참가하지 않고, 백인들의 세계에도 발을 들여놓지 않는 것처럼, 두 세계의 경계에서 지낸다. 결국, 자신이 백인 미군에 의해 농락당한 흑인 처녀의 몸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기 이름에 담긴 치욕을 씻기 위해 수도 산후안으로 가서 이름을 바꾸려고 한다. 그 여행 도중 어느 술집에서 우스마일은 자신과 같이 있는 접대부를 뺏어가려는 미국병사를 죽이게 된다. 물론 그 살인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자기 몸에 있는 백인 요소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몸짓이요, 자기 어머니와 뺏박 받는 푸에르토리코 민중을 대신한 복수요, 식민지 국민으로서 존엄

성을 회복하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다. 하지만 그에게 채워지는 짜늘한 수갑이 상징하듯 영원히 피식민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민중의 비극적 운명을 표상 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에서 가장 반미적 작품을 가장 많이 쓴 작가는 카를로스 푸엔테스이다. 그는 『히드라의 머리』(*La cabeza de Hydra*, 1978)라는 작품에서는 멕시코의 석유를 노리는 제국주의 자본을 고발하고 있다. 그는 1994년 출간된 『다이아나, 외로운 사냥꾼』(*Diana, la cazadora solitaria*)에서는 할리우드 문화로 대변되는 미국 문화의 저급성과 미국의 조작정치, 인종차별, 제국주의, 나아가 미국인들의 허위의식을 비꼬고 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할리우드의 여배우 다이아나는 여린 감성을 지닌 자유분방한 여성이다. 그녀는 소박한 인도주의 차원에서 미국의 인종차별과 인권탄압에 저항하는 운동에 동조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녀의 낭만적 인도주의는 백인우월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백인보수층을 대변하는 FBI의 공작에 희생된다. 이 소설에서 다이아나와 불륜의 사랑을 나누는 일인칭 화자는 소설가로서, 다이아나의 행동과 성격, 그녀의 주변 인물의 행동을 통해 미국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다른 많은 소설들이 미국의 경제적 제국주의를 고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이 소설은 미국의 위선과 폭력, 미국인들의 허위의식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 이전의 미국비판 소설들과 차별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화자가 다이아나의 동료인 미국배우 쿠퍼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다.

쿠퍼는 예상했던 대로, 모든 양키들이 그토록 집착하는 순박함의 상설이라는 주제로 빠져들었다. 나는 언제 그들이 순박했었는지를 항상 자문해왔다. 인디언들을 죽이면서? ... 노예가 된 흑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했을 때? 남북전쟁 동안 자기들끼리 대량학살의 만행을 서슴지 않았던 때? 어린이들과 이민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들의 정당한 재산을 굶여모았을 때? ... 대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언제 순박했던 말인가? 니카라과, 온두라스, 과테말라 같이 무방비에 처해있는 나라들을 무참히 짓밟았을 때? 히로시마 위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을 때? 맥카더와 그의 일당들이 단순한 의심이나 편집증으로 많은 사람들의 목숨과

인생을 망쳐놓았을 때? 독가스로 인도차이나의 무성한 밀림을 다 말라
비틀어지게 해놓았을 때?(Fuentes 1994, 109-110)

화자는 미국인의 순박함은 스스로 위안을 얻기 위해 영화에 의해
조장된 이미지, 창조된 신화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할리우
드는 자신들의 부도덕과 위선, 사치스런 탐욕을 감추기 위해 혁명의
깃발을 높이 쳐든 미국의 소돔”이라고 비유한다(Fuentes 1994, 27).
또한 ‘위선적인 영국인’ ‘냉소적인 프랑스인’, ‘자부심 강한 독일인’
‘거친 러시아인’ 등 어느 강대국 국민도 자기네 나라가 순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유독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외교정책이 사심이 없
고, 박애주의에 입각한 행위라는 것을 애써 믿으려 한다고 조소하고
있다(Fuentes 1994, 112-113).

미국에 대한 카를로스 푸엔테스의 비판적 시각은 그의 소설 『독수
리 문양 의자』(*La silla del águila*, 2002)에서도 드러난다. 2020년을 배
경으로 멕시코 정치인들의 부패와 무능을 고발하는 작품이다. 이 가
상 미래 소설에서 멕시코 대통령은 용기를 내어 미국의 콜롬비아 점
령에 반대하면서, 미국에 판매하는 석유에 대해 OPEC의 가격에 준
해서 수출하겠다고 공언한다. 미국의 대응은 즉각적이었다. 통신위성
에 문제가 생겼다는 핑계를 대면서 멕시코 통신 산업을 장악한
AT&T회사를 통해 멕시코의 모든 통신망을 두절시킨다. 인터넷, 전
화, 팩스 등 모든 통신수단을 잃게 된 멕시코는 호된 대가를 치르게
된다.(Fuentes 2002, 26-27).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도입 이후 국가 기
간산업마저 미국의 대기업에 넘긴 현재의 상황이 갈수록 멕시코의
정치적 독립성마저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작가의 생각이 드러난 일
화라고 볼 수 있다.

IV. 맺는 말

오늘날 멕시코 사람들이 미국에 대한 피해의식을 느낄 때마다 “우

리에게 하느님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고, 미국은 너무 가까이 있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되뇌는다. 하지만 이것이 멕시코 사람들만 느끼는 감정은 아닐 것이다. 라틴아메리카의 모든 나라 국민들이 자신들의 어려운 처지를 되돌아 볼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오늘날 라틴아메리카가 가난하게 사는 원인이 외부에만 있다는 것은 아니다. 내부적으로, 부도덕한 상류층은 외국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였고, 부패한 지배세력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으며, 몽매한 국민들은 현명하게 행동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¹⁾ 하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오늘날까지 라틴아메리카가 빈곤과 불행 속에 살아온 것은 무엇보다 스페인을 비롯한 서구열강의 약탈과 미국의 제국주의적 간섭과 착취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중심부-주변부 이론’이든, ‘종속이론’이든, 정통좌파 이론이든, 한 가지 이론으로 라틴아메리카가 낙후된 원인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세 이론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듯이, 라틴아메리카의 빈곤이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과의 불공정한 관계에 그 중요한 원인이 있다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20세기 들어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이 정치적 자주, 경제적 자립을 이룩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을 때 미국이 방해하고 저지하지만 않았더라면 지금의 상황보다는 훨씬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결국, 스페인이 3세기 동안 라틴아메리카의 비극을 연출했다면, 그 후 두 세기 동안은 미국이 그 역할을 대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만큼 미국은 현대 라틴아메리카의 일그러진 모습을, 폭력과 가난으로 점철되고 있는 현실을 만든 장본인 중 하나다.

그러기에 현실에 대한 예리한 관찰을 게을리 하지 않는 작가들에게 미국은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욱이 라틴아메

11) 라틴아메리카의 문제를 내부적 요인으로 설명하는 최근 저서로는 Plinio Apuleyo Mendoza 외 2인(1996)이 공저한 *Manual del perfecto idiota latinoamericano*, Barcelona, Plaza&Janes.Mendoza가 잘 알려져 있다. 이 저서의 내용에 관해서는 광계성/우석균 (2000), 『라틴아메리카를 찾아서』, 민음사, 316-321. 참조.

리카 작가들은 문학의 사회적 비판기능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 미국의 제국주의의 실체가 드러나기 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부당한 개입과 착취를 고발하는 데 있어서도 예외가 없었다. 그들은 라틴아메리카의 불행한 현실을 생각할 때 문학의 사회적 역할은 서구의 선진국에서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현대 여성작가로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이사벨 아옌데는 역사적으로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작가의 사회적 역할에 관해 언급하는 자리에서 “민중이 작가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작가들이 고통 속에 침묵하고 있는 민중의 목소리를 대신하기 때문이다. 작가들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대의에 봉사하는 책임을 져야한다.”(Coddou 1987, 141)라고 말하고 있다.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노벨상 수상 연설에서도 이처럼 미국과 서구 문명의 패러다임에 의해 착취당하고 소외당한 라틴아메리카 민중의 고뇌와, 이에 대응하려는 라틴아메리카 작가들의 의지와 목표가 잘 드러나 있다.

우리(라틴아메리카인)의 최대의 적은 우리의 삶을 믿게끔 만들 수 있는 전통적인 도구가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 이것이 바로 우리 고독의 핵심입니다. 자신의 문화를 보면서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서구의 이성적 재능이 우리를 해석하는데 전혀 가치 없는 도구가 되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가장 번영한 국가들은, 오늘날까지 존재해왔던 모든 인류뿐만 아니라 이 불행한 지구를 지나쳤던 모든 생물을 백번 이상 소멸시킬 수 있는 충분한 파괴력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 인류의 전 역사를 통해 일견 유토피아처럼 보였던 이런 가공할 만한 현실 앞에서, 모든 것을 믿는 우화의 창조자들인 우리는 아직도 그것과 반대인 유토피아를 창조하는 작업을 실행하기에 늦지 않았다고 믿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새롭고 활짝 개인 삶의 유토피아이며, 그곳은 아무도 타인을 위해 심지어는 어떻게 죽어야 한다고 까지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곳이며, 정말로 사랑이 확실하고 행복이 가능한 곳이고, 백 년 동안의 고독을 선고받은 가족들이 마침내 그리고 영원토록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곳입니다.(송병선 1997, 191-194)

오늘날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더불어 라틴아메리카의 대미 종속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은 미국과 IMF의 권유를 받아들여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시했지만 대다수 민중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국가의 주요 기간산업은 다국적 기업의 손으로 넘어갔다. 미국에 대한 종속이 갈수록 심화되자 지난 10여 년 전부터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미국 대사관을 ‘부왕청’으로 부르고 미국대사를 ‘부왕’이라 부르곤 한다. 신자유주의정책의 실패와 대외종속의 심화를 경험한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등 많은 나라에서는 최근에 좌파 정권이 등장하였다. 앞으로 이들 나라가 어떻게 미국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무너진 경제를 되살릴지 주목된다.

Abstract

El objetivo de este artículo es reafirmar la influencia norteamericana en América Latina. Después del derrumbe de la Unión Soviética, todo el mundo está viviendo una época de “Pax Americana”, y la mayoría de los países del mundo se ven obligados a aceptar el neo-liberalismo dirigido por Estados Unidos. Es decir, es el momento en que se requiere más que nunca conocer bien el carácter real de Estados Unidos, o sea, su imperialismo escondido detrás de su fingimiento como defensor de la libertad y la democracia.

Cuando se trata de las causas de la pobreza y la violencia permanentes de los países latinoamericanos, se culpan a la colonización española y sus herencias negativas: feudalismo, catolicismo, caudillismo, mezcla de sangre, servilismo, etc. Por lo tanto se suele olvidar la predominación norteamericana sobre América Latina: su intervención militar, su manipulación política y explotación económica, entre otros factores. Esta es la situación que justifica el sentido de este artículo, en

especial, para los lectores ajenos a la responsabilidad de Estados Unidos sobre la desdicha actual del pueblo latinoamericano.

Este artículo no pretende inculpar del todo a Estados Unidos. Es cierto que hay otras causas de la infelicidad latinoamericana. Sin embargo, también es cierto que Estados Unidos ha sido un gran obstáculo para la democracia y la liberación del pueblo en muchos países de ese continente.

Con esta visión, aquí se observan las intervenciones norteamericanas militares, políticas y económicas en Nicaragua, Guatemala, Brasil, Argentina, por ejemplo. Después se estudia cómo la presencia y el carácter imperialistas de Estados Unidos se han reflejado en la literatura latinoamericana. Se habla de los poemas de Rubén Darío, Pablo Neruda, Nicanor Parra, y las novelas de Miguel Angel Asturias, Carlos Fuentes, Pedro Juan Soto, Manuel Scorza, entre los más representativos..

Key Words: Imagen de Norteamérica, Imperialismo, Intervención Norteamericana, Relación Histórica, Literatura Latinoamericana / 미국의 이미지, 제국주의, 미국의 개입, 역사적 관계, 라틴아메리카 문학

논문투고일자: 2005. 11. 04

심사완료일자: 2005. 11. 15

게재확정일자: 2005. 11. 22

참고문헌

- 남진희(1999), 「호세 마르티: 쿠바 독립과 새로운 사회공동체의 구상」,
in 이성형 편,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와 사상』, 까치, pp.
177-193.
- 노암 촘스키(1996),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김보경 역), 한울.
- 데이비드 하비(2005), 『신제국주의』, 한울 아카데미.
- 송병선(1997), 『가르시아 마르케스』, 문학과 지성사.
- 이성형(2002), 『라틴아메리카: 영원한 위기의 정치경제』, 역사와비평사.
- Asturias, Miguel Angel(1972), *Viento Fuerte*, sexta edición, Buenos
Aires: Editorial Losada.
- Bretz, Mary Lee & Trisha Dvorak & Carl Kirschner(1992), *Pasajes*,
New York: McGRAW-HILL, INC.
- Coddou, Marcelo(ed.)(1987), *Los libros tienen sus propios espíritus*,
México: Universidad Veracruzana.
- Darío, Rubén(1954), *Obras Completas, Cantos de vida y esperanza*,
(1905), Madrid: Aguilar.
- Fuentes, Carlos(1992), *El espejo enterrado*, México, D. F.: Fondo de
Cultura Económica.
- _____ (1994), *Diana, la cazadora solitaria*, México: Aguilar.
- _____ (2002), *La silla del águila*, México: Alfaguara.
- Galeano, Eduardo(1992), *Las venas abiertas de América Latina*,
Sexagesimocuarta edición, México D. F.: Siglo Veintiuno.
- Marras, Sergio(1992), *América latina, marca registrada*, Barcelona:
Ediciones B.
- Neruda, Pablo(1992), *Canto General*, Madrid: Cátedra, Letras Hispánicas.
- Parra, Nicanor(2001), *Páginas en blanco*, Selección y edición de Niall
Binns, España: Ediciones universitarias de Salamanca.